

[조광]을 읽다

‘역사학연구소 한국 근현대 잡지 세미나팀’은 2015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재 잡지 기사로부터 시작해서, <조선지광>, <비판> 등 ‘사회주의 잡지’, 종합 잡지 <신동아> 등을 강독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1930년대 후반과 전시체제기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<조광>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

<조광>은 1935년 11월 창간호가 나온 후 100여 권이 넘게 발간되었습니다. 뒤로 가면 갈수록 친일적 논설이 다수 등장하게 되지만, 파시즘과의 사상적 고투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또한 조선연구 등 학문 연구의 장이 이어졌던 맥락도 확인하게 됩니다. <조광>을 통해서 일제 말기를, 그리고 해방 직전까지 축적된 담론 지형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세미나 진행방식

- 일시 :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7시
- 장소 : 역사학연구소 회의실
- 세미나 1회당 3호 검토, 35회 내외 예상
- 1호를 1인이 목차 중심으로 발제
- 자료 복사 등을 위해 소액의 회비 수령

첫모임 안내

- 일시 : 10월 11일(금) 오후 7시
- 장소 : 역사학연구소 회의실
- <조광>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, 세미나 참가자 인사와 발제 분담

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참가하실 분은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(cogito422@naver.com)

